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박효진*

¹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A Study on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Hyo-Jin Park*

¹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Hyups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에 따른 중고령 여성의 노후생활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청소년기 자녀 수, 청년기 자녀 수, 공적연금 가입, 금융자산, 부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이 이루어졌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Using four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panel data of National Pension Reacher Institute. The research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 life who middle-old aged women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were education level, subjective health status, a number of adolescent children(14-19), a number of adolescent children(20-39), public pension, financial asset and debt. On the basis of this results, suggestions for policy were offered.

Keywords :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Middle-old aged women

1. 서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에 12.7%이며, 2024년에는 19.0%, 2034년에는 27.6%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1].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2020년에 이르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전망되며 이는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이 더욱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이후 경제활동 없이 지내야하는 노후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나 노년기로 진입하기 이전 단계인 중

고령층의 노후준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중고령층 대다수가 부모의 부양 및 자녀의 대학교육비와 결혼준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4-7] 반면에 본인 노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자녀나 가족이 아닌 본인과 연금(사회보장제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통적인 부모부양과 효에 대한 가치관이 와해되고 사회적 규범이 빠르게 변화되어 현재 중고령층의 자녀 세대들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을 짐스러워하고 있다[8-9]. 이러한

*Corresponding Author : Hyo-Jin Park(Hyupsung Univ.)

Tel: +82-2-980-9737 email: jinjin0905@daum.net

Received July 1, 2015

Revised (1st July 28, 2015, 2nd September 15,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상황 속에서 중고령층이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 결과, 중고령층의 절반 정도가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고 걱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노후준비 역시 중고령 여성이 중고령 남성에 비해 노후준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2, 4, 10-12]중고령층 특히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미흡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중고령 여성들이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노년기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지 및 준비를 하지 못한 결과 심각한 경제적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절대 빈곤율은 2013년도에 29.0%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48.1%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6%에 비해 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14]. 즉,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없이 노후를 시작하게 된 현재 고령자들의 빈곤율은 다른 세대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중장년층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빈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의 경우 40.1%의 빈곤율을 보인 반면, 여성노인은 45.9%로 더욱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노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빈곤위험을 수반하는 생애 사건이며, 여기에 ‘여성’이라는 속성과 결합할 경우 빈곤위험이 더욱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9].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미비가 노년기에 여성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2, 4, 10-12, 13-14].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중고령자 및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여부 및 방식,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 및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를 살펴본 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 혹은 중고령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특성 및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고령 여

성들이 현재 경제적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경제적 노후준비가 된 집단과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 향후 노인 빈곤여성이 되는 것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및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섬조사구와 시설단위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10가구와 만50세 이상의 개인 및 배우자 8,68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9월 현재 6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4차 데이터까지 오픈되어져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가구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상태, 가족관계,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 여성의 노후생활특성 파악 및 경제적 노후준비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은 중고령 여성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50세 이상 64세까지인 중고령 여성이다. 따라서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에서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중고령 여성을 먼저 선정하였다(1,605명). 이 중에서 본인이 현재 노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여성(269명)은 본 연구목적인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영향요인 파악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러한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게 된 분석자료는 총 1,336명이며 이 중에서 노후준비를 하고(되어) 있는

대상자는 427명(32.0%), 노후준비를 하고(되어)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는 909명(68.0%)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변수정의 및 측정

2.2.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 중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문항의 응답 범주는 “준비하고(되어) 있다”,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 경제적 노후준비가 하고(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2.2 독립변수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선행연구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 7, 10, 12, 15-16], 배우자 유무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7, 10, 12]. 경제활동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10],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건강상태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 15-17].

가구특성으로 가구원수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 16, 21],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선행연구도 있다[7]. 특히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교육비지출과 자녀취업 및 결혼준비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청년기(20~39세)와 청소년기(14~19세)로 연령을 구분하여 변수에 투입하였다. 돌봄노동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 부모에게 경제적 이전(사적이전)을 하는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5]. 또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이 경제적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7, 10, 15-16, 21], 주택소유하면 경제

적 노후준비 할 가능성 높아지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수 중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 졸(2), 고등학교 졸(3), 전문대졸 이상(4)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배우자 유무는 이혼·사별·별거(0)와 기혼(1)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건강상태는 연구대상자가 현재 판단하는 신체적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매우 좋지않다(1)에서 매우 좋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가 현재 판단하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가구특성 중 청소년기 자녀는 14세부터 19세까지의 자녀수를 나타내며, 청년기 자녀는 20세부터 39세까지의 자녀수를 의미한다. 돌봄노동은 연구대상자인 중고령 여성이 손자녀를 돌봐주거나 본인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수발 및 간병을 하는 경우(0), 그렇지 않은 경우(1)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으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여부를 의미하며, 금융자산은 금융기간 예·적금, 개인연금, 저축성 보험, 펀드 평가금액, 주식투자금액,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의 총 금액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동산자산은 현재거주주택(임차주택 포함), 거주주택 외 소유주택, 사업체, 기타 부동산 자산의 총 금액을 의미한다. 사적이전지출은 가족, 기타친인척, 이혼한 배우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현금/현물의 형태로 제공한 총 지원 금액을 나타내며, 부채는 금융기관·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유무에 따라 노후시작연령, 필요최소 노후생활비(부부 및 개인), 독립적인 경제력,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 노후 준비시 가장 중요한 부분(본인 및 사회)에 대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하고)있지 않은 집단=0’,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하고)있는 집단=1’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가구특성 변수, 경제적 특성 변수를 순차적으로 분석에 투입하여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과 순차적 분석 투입에 따른 모형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계분석에는 SPSS 20.0을 이용하였다.

3. 분석결과

3.1 중고령 여성의 노후생활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인 중고령 여성의 노후생활과 관련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 참고). 먼저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하고)있는 중고령여성은 평균 68.17세, 노후준비가 되어(하고)있지 않은 중고령 여성은 평균 67.69세로 노후준비가 되어(하고)있는 중고령 여성이 생각하는 노후 시작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수준의 노후생활비와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비는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중고령 여성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Related Variables by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I

Variable		A	B
anticipated age when old age begins t=2.101*	mean	67.69	68.17
	S.D	3.87	4.19
minimum living cost in old aged preparation(couple) t=-9.239***	mean	130.74	161.77
	S.D	49.08	71.62
minimum living cost in old aged preparation(single) t=-7.692***	mean	77.80	94.18
	S.D	31.41	44.95
appropriate living cost in old aged preparation(couple) t=-8.252***	mean	185.32	232.97
	S.D	79.41	130.00
appropriate living cost in old aged preparation(single) t=-7.973***	mean	111.70	134.88
	S.D	43.45	60.54
n		909	427

A=economic preparations X, B=economic preparations O
***p<.0001, **p<.001, *p<.05

다음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하고)있는 집단에서는 269명(63.0%), 노후준비가 되어(하고)있지 않은 집단에서는 247명(27.2%)로 나타났다(표2 참고). 즉,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도 노후준비가 되어(하고)있지 못하는 중고령 여성도 2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및 자녀 결혼준비에 대한 부담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4-7]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에 대해 경제적 노후준비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 배우자, 정부, 자녀, 사회단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하고) 중고령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95(92.5%)로 대부분이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하고) 있지 않은 중고령 여성은 본인과 배우자라는 응답이 734명(80.8%)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부가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121명(13.3%)로 나타나 노후준비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54.6%, 연금과 사회보험 그리고 국가 38.0%로 나타난 선행연구[8-9]에 비해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경제적 노후준비책임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사회적으로 중고령층의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는 경제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이라는 응답이 30.7%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하고) 있는 집단은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의 비율은 낮았으며(57.4%) 건강이 노후준비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더 높은 것으로(39.1%)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대책이 본인인지 사회적인지에 따라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인이 노후대책을 할 때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약 3%정도 나타났으나 사회적으로 노후대책을 세울 때에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약 13%~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노후준비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노후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서는 노후대책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적으로는 노인일자리 확충 및 참여와 관련한 노후대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 설계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Table 2. Related Variables by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II

Variable		A	B
independent economic power $\chi^2=157.292^{***}$	Have	247(27.2)	269(63.0)
	None	662(72.8)	158(37.0)
major role in preparation for old age $\chi^2=36.202^{***}$	I	406(44.7)	243(56.9)
	Spouse	328(36.1)	152(35.6)
	Children	49(5.4)	5(1.2)
	Social organization	5(0.6)	1(0.2)
	Government	121(13.3)	26(6.1)
most important thing in preparation for old age $\chi^2=9.787^*$	Economical problem	598(65.8)	245(57.4)
	Health	279(30.7)	167(39.1)
	Job	28(3.1)	14(3.3)
	Dwelling	4(0.4)	1(0.2)
most important thing in preparation for old age(social) $\chi^2=16.116^{**}$	Economical problem	354(38.9)	188(44.0)
	Health	410(45.1)	168(39.3)
	Job	115(12.7)	67(15.7)
	Dwelling	30(3.3)	4(0.9)
All		909(100.0)	427(100.0)

A=economic preparations x, B=economic preparations o

***p<.001, **p<.01, *p<.05,

3.2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

본 연구의 목적인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3 참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 확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정도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이로 인한 연구모형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 경제적 특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회귀모형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분 석은 부록 참조)

먼저 중고령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한 1 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38.459$, $p<0.001$),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변량 중 약 7.8%(Nagelkerke $R^2=.07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text{Exp}(\beta)=1.468$, $p<0.001$)과 건강상태($\text{Exp}(\beta)=1.375$, $p<0.001$)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은 46.8% 높아지며,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37.5%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 모형에 가구특성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2단계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45.224$, $p<0.001$),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변량 중 약 9.2%(Nagelkerke $R^2=.092$)를 설명하고 있어 1단계에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던 교육수준($\text{Exp}(\beta)=1.486$, $p<0.001$), 건강상태($\text{Exp}(\beta)=1.363$, $p<0.001$)와 2단계 모형에 추가적으로 투입된 청소년기 자녀($\text{Exp}(\beta)=.572$, $p<0.05$)와 청년기 자녀($\text{Exp}(\beta)=.745$, $p<0.01$)도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48.6%가 높아지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36.3% 증가함을 의미한다.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은 4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25.5%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에 추가적으로 경제적 특성을 투입한 모델로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13.845$, $p<0.001$),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변량 중 약 21.9%를 설명하고 있어(Nagelkerke $R^2=.219$), 1단계 모형과 2단계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크게 증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교육수준($\text{Exp}(\beta)=1.429$, $p<0.001$), 건강상태($\text{Exp}(\beta)=1.328$, $p<0.01$), 청소년기자녀 수($\text{Exp}(\beta)=.549$,

Table 3.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Independent variable		Step1			Step2			Step3		
		β	Wald	Exp(β)	β	Wald	Exp(β)	β	Wald	Exp(β)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017	.999	1.017	.005	.100	1.006	.007	.136	1.007
	Education level	.384	38.567***	1.468	.398	40.487***	1.489	.357	30.324***	1.429
	Spouse	-.197	1.385	.821	-.300	2.781	.741	-.186	.720	.830
	Subjective health status	.318	17.231***	1.375	.310	16.1496***	1.363	.284	12.840**	1.328
	Economic activities	.189	2.242	1.208	.198	2.392	1.219	.038	.078	1.039
Family Characteristics	Member of household				.096	1.6997	1.101	.141	3.403	1.151
	Adolescent children(14-19)				-.558	5.299*	.572	-.600	5.976*	.549
	Adolescent children(20-39)				-.295	8.541**	.745	-.340	10.453**	.712
	Care work				-.025	.010	.976	-.076	.090	.926
Economic Characteristics	Public pension							.820	29.486***	2.271
	Financial asset							.720	25.418***	2.054
	Real estate							.326	3.444	1.385
	Private transfers expense							.123	.097	1.131
	Debt							-.766	10.378**	.465
Constant		-3.821	12.210***	.022	-3.160	7.417**	.042	-3.819	9.513**	.122
-2 log likelihood			798.646			791.881			723.261	
Model Chi-square			38.459***			45.224***			113.845***	
Nagelkerke R ²			.078			.092			.219	
N			1,336			1,336			1,336	

p<0.05), 청년기 자녀 수(Exp(β)=.712, p<0.01)와 더불어 공적연금(Exp(β)=2.271, p<0.001), 금융자산(Exp(β)=2.054, p<0.001), 부채(Exp(β)=.465, p<0.001)가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 중 공적연금과 금융자산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약 127%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자산은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금융자산액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약 105%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령 여성이 가지고 있는 부채금액이 클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약 53.5% 감소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경제력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공적 경제적 노후준비 뿐 아니라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 모두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 7, 10, 12, 15-16]. 특히 교육수준 정도에 따라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와 걸림돌이 되는 원인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노후준비에 관심은 있으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며 건강 및 기능 악화로 인해 노후준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나타난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자금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미비하며 노후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2, 8, 15]. 따라서 이러한 특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2, 15-17]. 다수의 연구에서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다른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어 노후준비가 미비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승신 연구[15]와 홍금희·하주영 연구[17]에 따르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져 이에 대한 노후 준비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신체적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나지만, 중년기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노후준비정도가 가장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18],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대책 프로그램 마련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와 청년기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4~19세인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령대로 청소년기 자녀의 존재가 사교육비의 지출로 이어져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비 지출과 부담이 클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5, 16]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기 자녀는 대학 학자금으로 인한 지출과 취업준비 및 결혼준비로 인한 지출이 많은 시기로 청년기 자녀로 인한 경제적 지출이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정선·강숙[6] 연구에서도 자녀돌봄부담이 클수록 노후준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서 자녀돌봄부담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가 학업은 마쳤으나 취업이나 결혼 준비와 노후준비 시기가 맞물리면서 자녀돌봄부담감도 높아지고 노후준비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노후준비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인 중고령 여성들이 자녀의 사교육비지출 및 취업준비, 결혼 준비로 인하여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재무설계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자녀에 대한 돌봄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맞춤형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적 특성에 따른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에 가입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

고령층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이 공적연금 가입이라는 연구 결과[4, 12]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적연금제도 가입의무를 제외한 퇴직연금과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등의 정책은 기업 등 고용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이며[3]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다. 그러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가입율은 공적 연금에 비해 낮은 수준[19]으로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어 향후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자산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선행연구결과[15]에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자산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주택)을 소유하면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기존의 연구결과[7, 10, 15-16]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임차주택 전월세 보증금도 부동산 자산에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보유여부로 부동산 자산을 측정하여, 측정도구의 차이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고령여성의 경우,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전담하여 중고령 여성 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나지나 외(2010) 연구에서도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에 차이가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되어) 있는 경우 83.5%, 하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83.4%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부록 참고) 선행연구와 달리 배우자 유무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고령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후준비정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승희·김혜연의 연구결과[20]에 따르면 중년기여성의 노후준비도는 중간 이하로 낮게 응답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의 부재, 자녀 양육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개인이 혼자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 시간, 비용을 필요로 한다.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중고령 여성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의 미비는 향후 중고령 여성의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에 사회적

으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중고령 여성의 경우 급격한 기대수명의 연장 및 핵가족화,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노부모에 대한 부양 및 자녀에 대한 돌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자녀로부터 부양은 받지 못하고 스스로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해야만 하는 세대이지만 노후준비를 할 시간이 많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다. 중고령층 여성에 대한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은 밀의 세대에게는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고령화시대의 노인빈곤으로 인해 투입되는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 여성 중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데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노후준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및 경제활동 참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4 Senior citizen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nw/2/6/5/index.board?bmode=read&aSeq=330349>, September 29, 2014.
- [2] S. J. Lee, "The characteristics of old age preparation of Korean Adult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welfare Policy Forum, Vol. 147, pp.72-80, January, 2009.
- [3] Y. K. Lee. "Old Age Preparedness of Korean Baby Boomers: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Social Affairs Forum, Vol. 204, pp.15-20, 2013.
- [4]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Baby Boom Generation's past, present and future, Statistics Korea,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nw/3/index.board?bmode=read&aSeq=177519>, May 10, 2010.
- [5] J. M. Kim, K. W. Um, "A Study on economic preparation for the elderly life of baby-boomers focused on families'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6, No.4, pp.197-221, 2014.
- [6] J. S. Kim, S. Kang, "Baby Boom Generation's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ging Anxiety, Preparations for Old Ag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6. No.3, pp.440-452, 2012.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440>
- [7] J. N. Na, S. A. Baek, E. K. Shin, M. H. Kim. "A Study On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Korea Babyboomer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0, No.2, pp.29-54, 2010.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0.30.2.29>
- [8] G. H. Jeong, S. J. Lee, Y. G. Lee, S. B. Kim, D. Seonu, Y. H. Oh, G. G. Kim, B. M. Park, H. Y. Yoo, E. J. Lee.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pp.1-38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 [9] M. H. Chang, M. K. Mun, I. H. Choi, J. E. Suk, H. J. Noh, H. W. Kim, J. Y. Jung, A. R. Yang, Poverty of Elderly Women and Policy Implications. pp.1-27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 [10] C. J. Park,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0, No.3, pp.275-297, 2008.
- [11] Y. K. Lee. "Old Age Preparedness of Korean Baby Boomers: Policy Implications", Health-welfare Policy Forum, Vol.204, pp.15-20, 2013.
- [12] Y. J. Lee. "Preparation Characterizations for old Age of the Baby Boom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5, pp.253 -261. May,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5.253>
- [13] W. S. Lim, J. M. Lee. 2014 Poverty Statistics Yearbook. pp.1-13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 [14] J. H. Kim,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Supporting Policy on Old Aged Preparation", Health-welfare Policy Forum, Vol. 209, pp.62-73, March, 2014.
- [15] S. S. Lee, "A Study on the Baby Boomer's whether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focused on Gener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Vol.44, No.2, August, 2013.
- [16] E. Y. Back, "Determinant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Types of Preparation of the Baby Bomm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7, No.2, pp.357-383, May, 2011.
- [17] K. H. Hong, J. Y. Ha, "Aging Anxiety,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nd Preparation for Aging in Early and Late Middle Ag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9, No.1, pp.29-39, April 2015.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1.29>
- [18] N. Lee, J. R. Han,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in Middle Ag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4, No.3, pp.374-399, 2014.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4.34.3.374>
- [19] J. S. Park, "The State of Retirement Saving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Baby Boomers", Health-welfare Policy Forum, Vol.196, pp.63-72, February 2013.
- [20] S. H. Hwang, H. Y. Kim, "A Study on Preparations for Elderhood and the Demand for Educational Programs on Elderly Life for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2 No.6, pp.73-87, December 2014. DOI: <http://dx.doi.org/10.7466/JKHMA.2014.32.6.73>
- [21] W. Son, S. M. Kim, "Determinants of Middle Aged's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p.349, May 2015.

박 효 진(Hyo-Jin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10년 2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9월 ~ 2014년 2월 :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소득보장, 빈곤, 일-가족양립, 돌봄노동

Appendix.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A	B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t=1.290	mean	57.55	57.26
		S.D	3.85	3.88
	education level x ² =77.257***	≤Elementary school	414(45.5)	120(28.1)
		Middle school	248(27.3)	117(27.4)
		High School	225(24.8)	139(32.6)
		≥College graduate or higher	22(2.4)	51(11.9)
	spouse x ² =.003	Have	759(83.5)	356(83.4)
		None	150(16.5)	71(16.6)
	subjective health status x ² =32.141***	Very good	17(1.9)	13(3.0)
		Good	320(35.2)	196(45.9)
		Usually	334(36.7)	157(36.8)
		Bad	214(23.5)	60(14.1)
		Very bad	24(2.6)	1(0.2)
	economic activities x ² =2.072	Have	413(45.4)	212(49.6)
		None	496(54.6)	215(50.4)
Family Characteristics	member of household t=.448	mean	2.97	2.94
		S.D	1.25	1.21
	adolescent children (14-19) t=2.062*	mean	.09	.05
		S.D	.350	.252
	adolescent children (20-39) t=1.736#	mean	.74	.66
		S.D	.85	.080
care work x ² =.064	Yes	63(6.9)	28(6.6)	
	No	846(93.1)	399(93.4)	
Economic Characteristics	public pension x ² =41.190***	Have	166(18.3)	146(34.2)
		None	743(81.7)	281(65.8)
	financial asset t=-7.435***	mean	592.99	2607.83
		S.D	2601.14	7237.97
	real estate t=-6.316***	mean	2884.56	8847.52
		S.D	8550.36	2559.31
	private transfers expense t=.024	mean	5.91	5.83
		S.D	57.88	39.08
debt t=-1.939#	mean	593.29	1053.04	
	S.D	3012.19	5637.88	
ALL		909(100.0)	427(100.0)	

A=economic preparations x, B=economic preparations o

***p<.001, **p<.01, *p<.05, #p<.1